

News

1년새 신용대출금리 2%P 올라...평균 이자 160만원 늘어

서울경제

1분기 말 국내 가계대출 규모 1,764조원 기록... 이자비용만 51조원...올 3월말 기준 가계대출 규모는 1,859조원, 평균금리 3.98%
문제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 예상...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은행채 금리는 13일 기준 3.959%

한계기업 비중 15% '10년래 최고'... "채무조정제도 보완해야"

디지털타임스

최근 한계기업 비중 상승으로 부실기업 증가할 가능성 높아져... 한계기업 비중은 코로나19 충격이 큰 취약기업 중심으로 신용위험 현재화되며 더 상승할 가능성 존재
주요국은 이미 채무조정 제도 개선에 나서... 한국은행, 채무조정제도 선제적으로 정비 필요 강조

금융권 DSR 3단계 전산 준비작업 착수...7월초 시행 목표

뉴스1

주요 은행들, 차주별 DSR 3단계를 위한 전산 작업 돌입... 기존 2단계 시스템에 새롭게 적용될 차주의 데이터 반영하는 방식... 관련 준비 마치고 당국 확인 받을 계획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이 넘는 대출자는 모두 차주별 DSR 규제 적용...전체 대출의 77.2%가 DSR 규제 받을 것으로 예상

토스뱅크 첫 적금 출시... 연 최고 3%

파이낸셜뉴스

토스뱅크, 출범 후 첫 정기적금 상품인 연 최고 3%의 적금 출시... 6개월 만기의 자유적립식 정기 적금
가입금액과 주 납입 이체 한도는 최소 1,000원 이상에서 최대 0만원까지... 가입기간 동안 최대 6회의 긴급출금 기능 포함

생보사 해외투자 비상...외화 유가증권 올해만 2조 ↓

데일리안

올 1분기 말 기준 국내 23개 생보사의 외화 유가증권 자산은 총 96조 3,976억원으로 작년말대비 2.1% 감소... 18년 9월말 이후 최소치
한화생명 외화 유가증권 보유량이 15조 8,546억원으로 동기간대비 15.6% 감소...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 영향... 해외투자 한도 확대하는 규제 완화 이후 성장세 꺾여...

카카오페이, 이르면 내달 손해보험협회 회원사 된다

뉴스포스트

카카오페이손보, 최근 손해보험회 회원사 가입 신청서 내고 이사회 의결 대기 중... 협회 회원이 되면 현안 공유 및 업계 중요사안 의결권 행사 가능
업계는 보험시장 개선을 위한 카카오페이손보의 새로운 시각 기대 중... 주력 상품과 관심사가 달라 논의하고 싶은 이슈도 다를 것 기대

증권사 담보부족 계좌 6배 급증... 15일 반대매매 쏟아진다

한국경제

국내 증시 연일 폭락에 증권사로부터 자금 빌려 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들이 담보 부족에 직면하는 경우 급증... 전일 S&P500지수가 -3.88% 급락한 것이 악영향
반대매매 물량 쏟아지며 당분간 증시에 하락 압력 커질 것이라는 예상... 담보부족계좌 수는 지난달대비 6배 급증해 16,554개로 증가

IBK·다올증권, 美 현지 증권사 거래 정지로 주식 매매 잠정 중단

서울경제

IBK투자증권과 다올투자증권, 미국 주식 매매 서비스가 미국 현지 브로커 문제로 잠정 중단... 미국 주식 및 미국 상장지수펀드의 매매주문 불가
미국의 LEK 서비스가 정지되었기 때문... DTCC와 NSCC는 작년 10월 LEK에 대해 서비스 활동 중단... 올 3월 청문회 이후 관련 서비스 정지 확정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